

“진안 발전 적극 챙길 터”

정세균 국회의장 고향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오전 10시 고향 진안을 방문했다. 정 의장은 동향면 선영을 방문해 참배한 후 고향 주민들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진안 동향은 정 의장이 태어나 자라며 유년시절을 보내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어 정 의장은 진안군청으로 이동해서 군청 강당에서 열린 진안 주민 환영식에 참석하였다.

환영식에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박명석 군의장과 의원, 김현철·최은희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3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진안군의 위상을 전국에 떨치고 있는 정 의장의 진안 방문을 환영하고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항로 군수는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함과 동시에 고향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고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주신 것



고향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을 치하하며 “앞으로 지역권 산림 자유원 국가사업 추진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국가예산 지원, 용담호 주변 마을 하수도 설치, 용담호 상류 인공습지 조성 등 지금 진안이 꼭 풀어야 할 4가지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진안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 마을 하수도 설치, 용담호 상류 인공습지 조성 등 지금 진안이 꼭 풀어야 할 일은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가 안성면 칠연계곡에서 물놀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휴가철 손님맞이 준비 완벽하게’

무주군, 종합상황실 운영 등

무주군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무주” 이미지 확산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1단계 추진 기간으로 구천동 관광단지 및 주요 관광지들의 식품위생, 환경, 교통, 물가, 도로 등에 관한 사전지도와 홍보 활동을 펼치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종합상황실(상황반,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며 현장(구천동 관광단지, 안성면 칠연계곡)에서 직접 노

점상,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물놀이 안전지도, 관광안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도단속에는 무주경찰서와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알려지기도 했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이 개최되며 같은 기간 동안 예년 관광객들의 식품위생, 환경, 교통, 물가, 도로 등에 관한 사전지도와 홍보 활동을 펼치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종합상황실(상황반,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며 현장(구천동 관광단지, 안성면 칠연계곡)에서 직접 노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본격 시행

생산·유통·가공산업 육성

진안군은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제도 약을 도모하기 위해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친환경의무자조금이란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인 등이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

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000㎡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 인증신청단계에서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을 1년에 한번 씩 납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 판로부족 등으로 친환경 인증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에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소비촉진, 신뢰회복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417농가에서 568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와 지면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우렁이 농법, 친환경 인증비 지원사업·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민 행복을 위해 다함께 뛰자’

완주군, 청원월례회 개최

완주군은 민선6기 반환점을 맞이해 전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지난 6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청원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은 민선6기 2년 동안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정을 이끌어 온 박성일 군수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13개 읍면에 방방곡곡 누비며 다함께 열여가는 으뜸도시 건설과 군민 행복을 위해 뛰어달라는 뜻으로 완주군 3대 핵심정책과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자전거에 담은 퍼포먼스를 했다.

박성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다함께 열여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묵묵히 땀 흘려준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민선6기 하반기에도 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군민 행복이며 정책수립과정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룬 성과들도 많지만 후회와 아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쉬운 부분은 공유하고 세밀히 살피기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6기 하반기에도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 도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규모 현안인 테크노밸리 2 단계(미니복합타운), 삼봉지구, 복합 행정타운, 중소기업전용농공단지, 스

포스터운 조성,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공동도서관 등 사업추진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 할 것과 3대 핵심정책 가속화, 공공경제, 식품 먹거리 등의 하반기 역점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생활과학교실 ‘호응’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홍득)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배양을 위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장수군 생활과학교실(책임위원장 전북대학교 이정후)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도,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융합형 인재로 키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며 주민들에게는 과학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장수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등 관내 8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와 숨겨진 인물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레드푸드’의 고장 장수를 대표하는 ‘사과’, ‘오미자’를 소재로 하는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토마토’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레드푸드의 좋은 점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내 고장에 대한 자

긍심을 키워주는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장수군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을 통한 운영으로 레드푸드의 좋은 점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내 고장에 대한 자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시각장애인들 하계수련회서 친목 도모

무주군은 7일 부남면 굴암리 일원에서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가 개최됐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무주지회(회장 주익)가 주최·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시각 장애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교감을 주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관내 시각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함께 했으며 초대기수 공연과 색소폰 연주를 관람하고 장기지팡이를 통해 노래 실력을 뽐냈다.

황정수 군수는 “더불어 함께사는 무주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한 무주”라며 “무주군민이라는 동지식이 살기 좋고 마음도 편한 무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전자교육 및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5개 사업 추진에 연간 1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무주지회(회원 수 100명)는 지난 '93년 설립돼 무주군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생태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박차

진안군은 올해 생태교란 식물로 지정된 가시박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박과의 1년생 식물로 잎이 매우 무성하고 조밀하며 엉클송이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닳치는 대로 갈아 올라가 풀이나 나무를 초토화 시키며 최대 12m 이상 자라고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농작물이나 토종식물을 고사시키며 주로 물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식물로서 농가에서는 매우 기피하는 식물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진안읍은 외오천,

진안천 등 11개 지구, 용담면은 용담호 주변 2개 지구, 동향면은 구량천 등 5개 지구, 상전면은 외송마을 앞 1개 지구, 정천면은 정자천과 내동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가시박 어린순 제거와 예초작업을 위해 연인원 1,250명의 인부임을 해당 읍면에 배정해 가시박 제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6~9월 가시박제거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가시박의 종자가 잠마철 물을 따라 급속도로 번지는 특성이 있어 수작업으로 줄기와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완주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완주군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종전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

군은 군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여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민세 동결에 따른 정부의 보통 교부세가 작년에도 4억원이 넘게 감소되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 추세로 지난해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 하였고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모두 주민세를 인상해 올해부터 과세한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에게 부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증가된 재원은 주민들의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것”이라며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 CYS-Net 학교지원단 회의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6일 관내 초·중·고 교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학교지원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ADHD, 학습장애 등의 학생대상 심리치료 지원 방안과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포괄 상담사업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활성화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진안군은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희정)과 공동으로 2015년 이후 임용자 3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일원에서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공무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직위상호간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직접 강사로 나선 이근삼 부군수는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노하우를 신규공무원들에게 전수하여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박희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사회복지봉사자 정신건강증진교육 진행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7일 전북도 마음사랑병원 문화센터에서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봉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사회복지봉사자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김보영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소진예방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마음챙김 명상’ 회복, 힐링레시피 라는 주제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완주=이종복 기자